

## 구술로 본 1970년대 이후 전주지역 단독주택 부엌의 변화

### The change of Kitchen in a Single Detached House in Jeonju City after 70's through Oral Life History method

박선희\*  
Park, Sun-He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kitchen in a single detached house in Jeonju city after 70's. Oral life history method which has 12 women's personal narratives and 17 women's personal narratives with written report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obtained as follows: 1) It was beginning about late 1970 year that heating system and cooking place were separated in a house. 2) Many kitchens were reconstructed for indoor stand-up work place from late 1970's to the early 1980's. 3) There were major factors such as heating system, cooking fuel, and work center in the change of kitchen in old houses. 4) The kitchen toward the center with a living room was appeared in the floor plan of modern house after 1990's. The symbolic words of the indoor kitchen that work for women were 'warmness' and 'convenience'.

Keywords : personal narrative, single detached house, kitchen

주요어 : 구술, 단독주택, 부엌

## I.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과 더불어 가져온 전주 지역 단독주택과 부엌 공간의 급격한 외형적 변화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 관점에서 본 전주의 지역 문화적 특성과 변화는 특히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와는 시간적 물리적 차이가 있어왔다.

전주시는 본래 전원도시의 성격이 짙었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변 근교 농촌지대의 흡수로 지역 확장이 이루어져 농업경제활동은 시의 산업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57년 시의 확장으로 면적이 4배나 늘어났고 새로 편입된 군부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대였다. 그러다가 1967년도의 공단 입주를 시작으로 하여 1980년대 이후 공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시의 공업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이행과 더불어 전주 지역 주거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1972년에 시작한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은 농촌은 물론 도시까지 파급되어 무엇보다 부엌 공간의 위생적 개량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전주는 전통적인 도시형 한옥

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1970년대 말부터 택지 조성<sup>1)</sup>과 더불어 단독주택<sup>2)</sup>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80년대 급증한 아파트의 새로운 공간구조는 무엇보다 부엌 공간의 입식화와 새로운 설비 도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 변화의 경험은 기존주거에 대한 가족들의 새로운 시각과 판단을 형성하고 나아가 집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전주의 도시와 가족의 외형적 변화 속에서 단독주택 부엌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술 속 거주경험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부엌 공간의 현대화 과정 속에서 가정생활 주체자로서의 여성들이 부엌공간 변화에 대한 태도와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의 의의는 주거 공간 변화에 대한 미시사적 의미 및 여성들의 공간 변화 태도에 대한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에 있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해서 인류학적 접근 방법인 구술생애사<sup>3)</sup>

1) 문화촌과 호반촌일대

2) 벽돌조나 시멘트블럭조 그리고 이후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을 의미하며 이후 본고에서는 편의상 모두 '(일반)단독주택'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3) 구술증언을 채록 수집하여 자료로 이용하는 이 연구방법은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하나로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출처: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95-110쪽

\*정희원(주거자),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학 교수/인간생활과학연구소

이 논문은 2004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집과 가족의 문화사)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직접인터뷰, 주거와 부엌 공간의 변화를 알기 위한 실측 및 촬영 등 현지조사가 병행되었다. 구술사 연구방법이 주거학 연구에서 사용된 경우는 주거공간 경험에 대한 구술증언을 토대로 한 공간사용의 물리적인 자료수집<sup>4)</sup>과 간접적 구술의 담론 분석을 통한 일부 연구<sup>5)</sup>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구술사의 가치가 주관성과 개인성에 있으며 그 주관적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가치가 있으며 또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어떻게 객관적 구조와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sup>6)</sup>에서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부엌 변화에 대한 양적 통계 제시는 배제되었으며 조사의 성격상 물리적 변화에 대한 일부 사례의 수만 제시하고 이와 아울러 거주경험 구술 증언에 나타난 여성들의 담론 속 부엌공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의미 파악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구술생에서 인터뷰는 1970년대 이전에 혼인한 연령층으로 부엌의 공간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림을 주도로 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직접적 구술 내용을 지지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간접 구술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술 내용 분석은 2003년 10월~2005년 3월까지 직접 구술한 12사례(표 1)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접 구술자는 주거 조사를 이해하는 관련 전공 대학생 자녀를 통한 부모의 거주경험에 대한 구술을 기록한 17사례(표 2) 중 부엌의 변화 경험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70년대 초반에는 '문화촌'<sup>7)</sup>과 같은 단독주택용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단독주택이 조성되

표 1. 직접 구술자들 일반사항(녹취순서임)

번호	구술자(가명)*	출생년도	혼인년도	현주거형태	녹취일
1	오순옥	1949	1967	단독주택	2003.11.07, 13
2	이원효	1939	1960	단독주택	2003.12.23
3	고영자	1948	1967	반양옥	2004.3.19-24
4	정정순	1946	1966	단독주택	2004.3.30
5	김정순	1949	1969	단독주택	2004.4.01
6	박덕순	1946	1971	신축현대	2004.4.08
7	주연자	1942	1963	도시형한옥	2004.4.14
8	김정숙	1951	1977	아파트	2004.4.16
9	전숙희	1935	1958	아파트	2004.4.19
10	유영순	1948	1974	아파트	2004.4.17
11	임종례	1952	1978	단독주택	2004.4.30
12	이이정	1931	1952	아파트	2005.3.15

\* 구술자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음.

- 4) 고도임(1996), 전남 순천시방 전통농가 노주부의 구술사에 의한 주생활의 변천.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5) 박진희(2005), 일제하 주택 개량 담론에서 보여지는 근대성. 담론201.7/2. 한국사회역사학회
- 6) 주5)와 같음
- 7) 문화촌은 1960년대 말 택지가 조성되어 단독주택이 신축되기 시작한 비교적 중산층 이상의 신흥 주거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원래 방죽이었던 곳을 메워 택지로 형성된 곳이다(육완태, 2001).

표 2. 간접구술자들 일반사항

	조사자(가명)	구술자	출생년도	혼인년도	현주거형태
1	조진아	부모	1946	1970	아파트
2	김진성	부모	1943	1968	신축단독주택
3	이현진	모	1941	1966	신축단독주택
4	김애경	모	1954	1981	아파트
5	최은정	모	1954	1978	신축단독주택
6	김희선	모	1953	1980	아파트
7	임유민	모	1956	1983	아파트
8	조경란	모	1956	1982	아파트
9	정미영	모	1956	1980	아파트
10	오명선	모	1953	1980	신축단독주택
11	유주나	모	1953	1980	아파트
12	김영림	모	1950	1983	빌라
13	김소라	모	1957	1980	한옥
14	백지영	부	1947	1982	아파트
15	임희영	모	1956	1981	단독주택
16	김기정	모	1951	1971	아파트
17	소미경	모	1953	1976	다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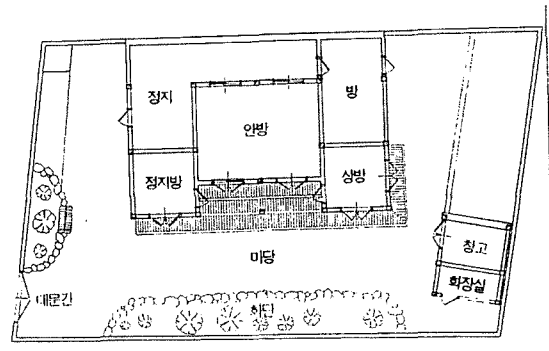


그림 1. 풍남동4칸형 한옥 평면(양용정, 1995, 49쪽 재인용)

있는데 당시 건축주의 선호 주거 유형에 따라 일반단독주택과 한옥의 블록이 조성되었고 대부분 단층 주거였다(박선희, 2004). 이 때의 부엌은 도시형 한옥(그림 1)이나 일반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협소하고 대체로 몸체의 뒤편에 위치하였다. 그러다가 76년에는 전주의 지역신문에 처음으로 입식 부엌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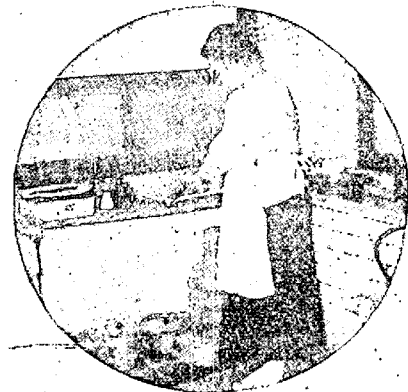


그림 2. 입식부엌의 등장(전북신문. 76년 1월22일자)

2. 80년대의 주거환경

80년대는 전주의 주거환경이 아파트에 집중화하기 시작 한 시기였다. 즉, 1970년 전주에 최초의 아파트를 시 발로 한 것이 80년에는 10배가 넘는 4천7백84가구가 지 어져 전주소 드디어 공동주택이 주거의 주요 유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전주시,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1985년 까지도 단독주택이 77.3%라는 높은 비율로 주택유형 중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1970년 대 후반부터 단독주택용 택지조성이 늘어나면서 2층 일 반단독주택이 많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신축된 주거의 부엌은 실내 다른 공간과 단 차가 없는 내부 통 합된 공간이자 입식 작업대 설비를 갖춘 것이었다.<sup>8)</sup> 입 식작업대의 도입은 당시 보편적인 연탄보일러의 개발로 난방과 취사가 분리될 수 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1980 년대에는 이미 LPG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하여 연탄사용 이 줄어들었고 이에 의한 부엌 작업대의 실내 입식화는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로 1982년 설계되고 다음 해 전주 호반촌 주거전용 주택지에 신축된 K씨 2 층 단독주택은 중심에 거실을 두고 각 방이 배치된 형 태였는데 부엌은 실내 입식화로 계획되어 별도의 취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84년 전주 송 천동에 신축한 L씨의 일반단독주택은 집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침실3개, 거실, 욕실겸 화장실이 1개 있는 단 층으로 이 집 부엌 역시 실내 입식화되어 있었고 부엌 안에서 식사도 가능한 공간구조로 계획되었다(그림 3, 4).



그림 3. 84년도 신축한 송천동 단독주택 L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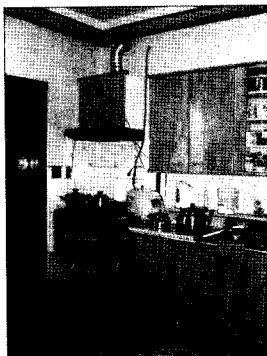


그림 4. L씨택 부엌

3. 90년대 이후의 주거환경

1990년 전주시도 도심과 부도심의 분산 형태로 확장되 고 시 외곽지역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전주 주거환경은 급격히 변모하였다. '90년 통계에는 전주 입식부엌의 비율이 40%에 달하였으나 여 전히 연탄아궁이/재래식아궁이도 26%에 머물고 있었다<sup>9)</sup>.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 등 연료의 사용이 다양해지고 기 존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공간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부 엌을 포함한 집의 전면적 개조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 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단층 주택을 2층으로 증축하 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층은 가족의 거주용 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위한 임대용 증축이 대부분이었 다. 이것은 문화촌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하여 본 주 택현황(119채조사)에도 초기 신축 이래 증축을 한 2층 주택이 41%(49채, 그림 6 참조)로 나타나 있어(1999년 기준) 주거규모의 확장 흐름을 알 수 있었다.<sup>10)</sup>



그림 5. 2층으로 증축한 정정순 주택

III. 구술 분석으로 본 단독주택 부엌변화

1. 구술자 여성의 주거 경험 및 일반사항

직접구술자들 12명은 55세~75세의 분포이며 그 중 4 명은 70년대에 혼인하였고 8명은 70년대 이전 혼인한 세 대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간접구술자들 17명은 49세 ~65세 분포로 4명을 제외한 13명이 모두 80년대 이후 혼인한 세대로 나타났다. 구술자들의 주거 이주 경험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술자 여성들은 친정이나 시 택이 전주 이외의 지역(고창: 정정순, 박덕순, 김정순, 광 주: 오순옥, 화순: 고영자, 남원: 이원효 등)이 많았으며 대부분 혼인이후, 그리고 자녀교육(정정순, 김애경, 이현 진)을 계기로 전주에 정착하였다. 또한 구술자 중 10사 례가 현 주거 이전 한옥 거주 경험이 모두 있었다. 혼인 때부터 혹은 전주 정착 후 소유 가옥에 지속적으로 거 주한 경우는 5사례(이원효, 정정순, 김정순, 주연자, 김정

9) 전주시 도시관리국 통계자료(1990년)

10) 박선희(2000), 단독주택의 진입외관에 나타난 주거아이덴티티. 한국가정과학회지3(2). 39~46쪽

8) 호반촌 L씨택 구술 증언

표 3. 간접구술자들의 주거경험(단독은 일반단독주택을 의미함)

번호	조사자	혼인 후 주거이주(조사자 부모)	최종이주
1	조진아	단독→아파트	1992
2	김진성	단독→신축단독	1978
3	이현진	단독→신축단독	1981
4	김애경	연립주택→아파트→아파트	1995
5	최은정	단독	1979
6	김희선	단독→단독→단독→아파트→아파트	1995
7	임유민	다세대→아파트→아파트	1983
8	조경란	단독→단독→아파트→아파트아파트	2002
9	정미영	단독→단독→아파트	1994
10	오명선	아파트→단독→아파트→단독→아파트→아파트→단독	2002
11	유주나	단독→신축단독→단독→아파트	2001
12	김영림	연립→상가주택→빌라	1993
13	김소라	한옥	
14	백지영	상가주택→단독→상가→상가→단독→아파트	1991
15	임희영	한옥→단독→단독	1988
16	김기정	단독→단독→아파트	1995
17	소미경	한옥→한옥→한옥→아파트→아파트→다세대	2002

숙)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분가하여 독립된 가옥에 거주하기는 어려웠고 시댁(정정순, 박덕순, 김정순)에서의 거주 아니면 셋방 거주 생활(고영자)이 출발점이었다.

혼인 이후의 이주에 따른 가옥 거주 경험은 직접구술자 12사례 중 9사례가 한옥→일반단독주택의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한옥에서 아파트로 옮긴 경우는 2사례만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 구술자들의 사례는 이와 다른 양상이었다. 1980년 이후 혼인한 11세대 중 2사례는 일반단독주택으로 1사례는 원래의 한옥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9사례는 모두 공동주택으로 최종 이사하였다.

2. 구술자들의 단독주택 거주유형과 부엌

구술자들 전체 단독주거 경험 중 도시형한옥 거주 경험은 13사례, 일반단독주택 거주가 12사례, 기타 4사례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거주경험의 시기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 도시한옥과 부엌구조

구술자들 중 1969년에서 1970년대 초기 문화촌에 지어진 도시형한옥 거주자들 중 박덕순과 오순옥의 집에 대한 공간 구성 사례는 대체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전주의 도시형한옥의 기본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오순옥의 집은 큰방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머리방과 부엌, 왼쪽은 전면에 식당방과 그 뒤에 부엌이 있었으며 앞에 텃마루가 붙어 있는 평면구조였다(그림 4). 박덕순은 2001년까지 거주한 도시한옥에 대하여

“화장실은 대문 앞에 있었으며 목욕탕과 연탄평이 함께 있었어요. 구들이었는데 연탄보일러로 바꾸었고 방을 다

뜯어서 파이프를 깔았지요. 뒤에 또 석유보일러로 바꾸고...부엌에서 계단 밟고 올라가야 하는게 허리가 아프고...”

라고 하였으며 오순옥은 70년대 거주한 도시한옥에 대하여

“72년에 한옥으로 이사왔는데 시동생들도 같이 살았고 군대간 후 시부모님을 모셔왔지요. 부엌방에 모셨죠. 어른들 계신 방에서 식사하기 불편해서 방을 옮겼지요. 부엌은 연탄때는 거였고 겨울에는 외풍이 좀 있었죠. 좀 춥고...”

라고 구술하였다. 당시의 부엌은 북서쪽에 위치하였으며 어둡고 좁았다. 오순옥 가족은 이후 81년에 한옥을 개조하여 살다가 85년에 근처 지금의 일반단독주택을 구입하였다.

지금도 도시형한옥에서 살고 있는 주연자는

“괜찮아요. 연료값하고 겨울에 좀 추워서 그렇지 살만해요. 재래식 부엌은 방으로 바꾸어버렸고...애들은 아파트에서 오면 출다고 웅크리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습관이 되어서..마당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들어요. 살기 좋지. 주방도 있고...”

라며 한옥의 주거생활에 매우 만족해하였다.

박덕순은 2002년까지 도시형 한옥에 거주하였다(그림 5). 시집오기 2년 전 60년대 말에 시아버지가 한옥을 지으셨다고 한다.

“저 밑에 집도 한옥이었고, 우리집도 한옥이었고, 이 근방은 전부 한옥이었고요. 우리 시아버지는 시골분이라 한옥이 따뜻하고 좋다 해서 한옥을 지으셨어요.”

당시 거주했던 한옥과 부엌평면은 오순옥의 한옥과 비슷한 구조로 부엌 역시 북서쪽에 위치하였다. 박덕순은

“부뚜막이 식당방 여기까지 붙었고, 여기가 부엌이면 큰방에 벽장이 있었어요. 벽장 밑으로 연탄 아궁이가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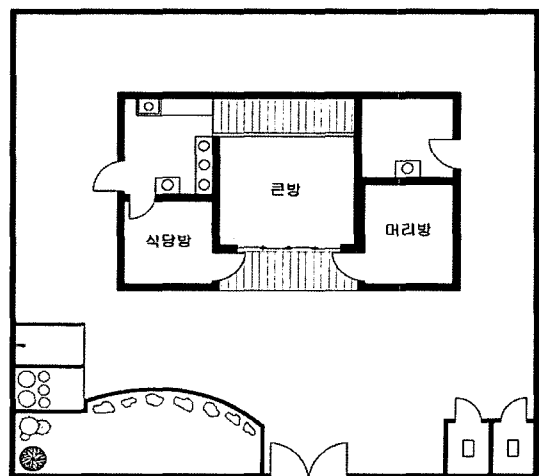


그림 5 박덕순 거주 한옥평면(출처: 연구자 실측 작성. '70~2001년까지 거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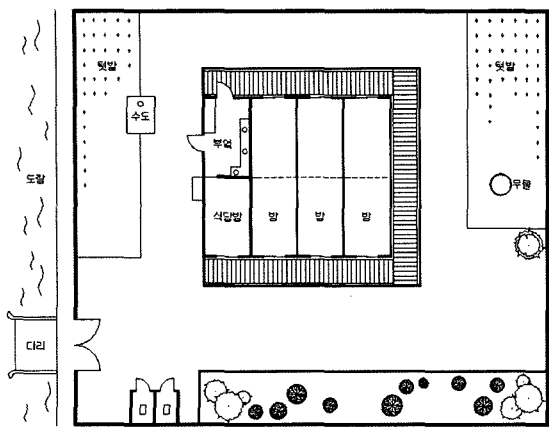


그림 6. '이칸장방'으로 불렸던 김정숙가주 한옥(출처: 구술과 스케치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

라고 부엌구조를 설명하였다.

한편 일반 서민형 도시한옥과 달리 규모가 큰 한옥구조의 한 사례는 김정숙의 친정집으로 1960년대 당시 이칸장방으로 불렸던 8칸 겹집구조(그림 6)이었다. 큰방이 3개 연이어 놓이고 좌측 전면에 식당방과 서북쪽에 부엌이 놓인 배치방식이였다. 화장실이 외부에 설치되었으며 부엌은 연탄을 사용하는 아궁이였고 바깥 마당에 수도가 있었으며 방마다 별도의 구들을 지닌 난방방식이였다. 이러한 한옥평면은 전주 도시형 한옥의 또 다른 변형의 사례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도시형 한옥 내 부엌은 대개 몸채의 동북측이나 북서측에 위치하였으며 재래식 아궁이와 부뚜막으로 구성되었고 집에 따라서는 개수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아궁이는 70년대 들어 연탄아궁이가 일반적이었고 여기서 취사를 병행하였다. 즉, 취사연료가 장작에서 연탄으로의 변화 이외에는 부엌 구조의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일본식 가옥과 부엌구조

구술자들 중 유영순의 친정은 해방 이후 남겨진 적산가옥을 구입하여 일부 수리를 하고 거주하였다. 다다미방(3)을 제외한 나머지 다다미방은 모두 온돌방으로 개조하였는데 유영순의 어머니는 규모가 큰 당시의 일본식 집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했고 가족들 모두가 그 집이 매우 기능적이었다고 회상한다고 구술하였다. 부엌은 집의 제일 위쪽에 위치하였으며 당시 화덕이나 개수대가 모두 입식 높이로 되어 있었다(그림 7) 유영순은

“부엌은 처음부터 입식 설비가 되어 있었다.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화덕은 작은 냄비를 2개 사용할만큼의 크기였고 장작을 때는 구조였다. 바로 맞은 편에 별도로 입식 조리대와 개수통이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수도가 옆에 세워져 있었다. 즉, 화덕과 개수대는 병렬형으로 세워져 있었고 그 사이를 가로 지르는 측벽에는 나무로 된 2단 살간이 있었다. 소위 ‘ㄷ’형의작업공간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또한 안방의 벽측에 해치가 있어 식기용 찬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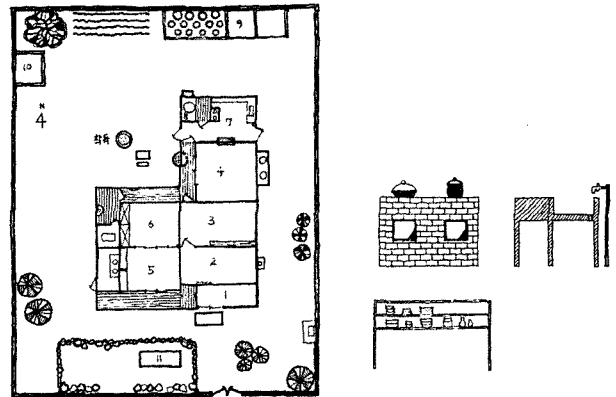


그림 7. 유영순이 거주한 일본가옥 평면과 화덕, 입식개수대, 찬장 등 부엌설비 (유영순의 구술과 스케치를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사용되었으며 부엌이나 안방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였다. 안방 아궁이는 바깥으로 나왔었는데 주로 여기에 있는 가마솥과 작은솥을 이용하여 밥을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1981년 부엌을 개조할 때까지 그대로였다.”

고 구술하였다. 한편 이원효는 71년 전주에 오기 전 고창에서 역장을 했던 남편의 관사가 일본식 주택이었는데 그 집에 대하여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철근을 목조로 싸서 지었더라구요. 목조 속에 자갈을 채우고 철근을 박고... 다다미방이 하나 있고 온돌방이 두개고 부엌은 방에 입식으로 붙어 있었어요. 수도는 없고 물 길러다가...부엌이 마루에서 밑으로 가는 곳에 있었는데 물이 그리 빠지더라구요. 난방은 장작을 때서 사용하고...” 라고 구술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식 가옥의 부엌은 그 사례가 적어 일반화할 수 없으나 유영순의 사례처럼 화덕이나 개수대가 입식화한 설비로 이루어졌고 거주자들은 이에 대한 기능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군산의 이영춘가에서도 유사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3) 일반단독주택과 부엌구조

오순옥은 문화촌 한옥에서 거주하다가 새로 지어진 같은 주거지의 일반단독주택으로 1985년 이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족은 많은데 집이 좁아서 넓은 집이 필요하였고 85년도가 경제적으로 하락세여서 집값이 하락해서 일반단독주택으로 바꿀 기회가 있었어요. 일단 땅이 넓고 정원도 잘 갖추어져 있고 방이 많고 집이 튼튼하고...”

라고 구술하면서 일반단독주택은 이사할 당시 꽤 크고 좋은 집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엌위치는 북서쪽(그림 8)이고 당시의 입식부엌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이원효는 당시로는 드물 게 집을 일찍 신축(1971년. 그림 9)하여 이사하였다. 동생들을 데리고 살았으며 후에 2층은 외부인들에게 임대하였다. 초기에는 부엌이 재래식인 것을 88년도에 개조하여 입식으로 만들었고 외부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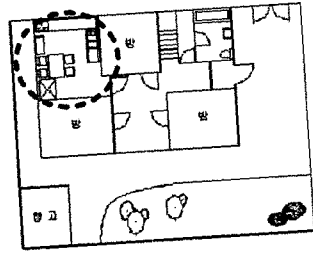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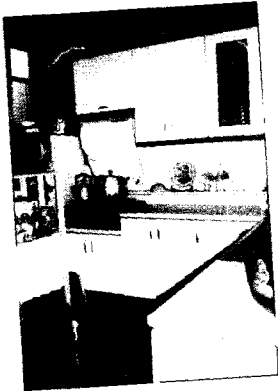


그림 8. 오순옥의 부엌과 평면상의 위치

있던 화장실을 내부에도 만들었다. 1970년대 지어진 반양옥<sup>13)</sup>으로 1983년 이사한 고영자의 집은 중앙에 큰 마루와 방이 놓이면서 안방이 좌측에 크게 만들어지고 대신 부엌이 동북쪽에 위치하였다. 이사 당시에는 연탄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90년대 초에 석유보일러로 바꾸었다.

정정순은 77년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지금의 일반단독주택에 이사하였다. 정정순 집의 평면(그림 10)은 흥미롭게도 한옥과 같은 공간 배치 유형을 보이는데 큰 마루를 중심으로 세 개의 방과 부엌이 인접하였다. 김정순은 혼인 후 시골에서 살다가 시어머니가 지은 전주의 지금 일반단독주택에 처음부터 거주하였다. 평면은 큰 마루가 중앙에 놓이면서 양측에 방이 형성되었다. 부엌 역시 집의 정면에서 볼 때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2). 박덕순의 신축 일반단독주택(2002년, 그림 12)은 집의 전면과 중앙에 거실과 뒤쪽 부엌겸 식당이 놓이고 그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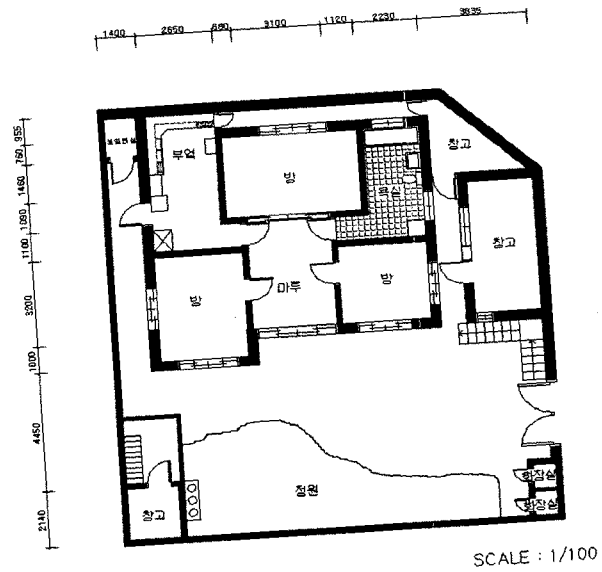


그림 10. 정정순 주택 1층 평면(연구자 실측)

쪽에 방 2개, 출입구 왼편에 안방이 있는 방 3개를 지닌 단출한 평면 구성이다. 거실은 한옥에서의 큰방과 같은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같은 위치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유정순의 집은 1982년에 2층 일반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다. 1층에는 안방을 비롯하여 거실과 주방, 입식 주방, 욕실이 설계되었고 한쪽에 별도의 부엌이 방과 함께 계획되어 임대 가능하도록 하였다. 2층에도 역시 별도의 거실과 주방 욕실이 계획되어 임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지하실에는 연탄보일러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신축된 박덕순을 제외한 구술자들의 일반단독주택 사례에서 나타난 부엌위치의 도시형 한옥과 같은 북서측이 많고 부엌 내 구조는 재래식 아궁이와 부뚜막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역시 양옥형태의 단독주택에서도 기존의 부엌에 대한 위치나 사용에 대한 관습적 개념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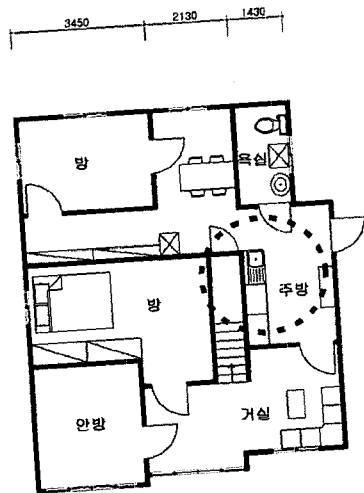


그림 9. 이원효의 집:  
1988년도에 부엌의 실내 입식화로 전면 개조함(연구자 실측)

### 3. 부엌공간 변화

#### 1) 부엌공간과 취사설비의 변화

70년대 전후 지어진 대부분 주택의 부엌이 허리를 많이 굽혀야 하는 낮은 부뚜막에서 취사작업을 해야 하는 공간 구조인데 비하여 신축 처음부터 부분적인 입식이 되어 있는 사례는 김정순, 정정순의 사례이다. 김정순은 당시 시어머니가 신축한 주택 부엌에 입식 개수대가 있었는데.

“부엌 개수대는 수도꼭지만 하나 있었고 시멘트로 높이 기둥 세우고 그 안에 텅 비어 있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라고 구술하였다. 또한 정정순도

“<그림을 그리면서>위에는 다락이 있었고, 여기 기억자로 연탄이 있었고, 여기가 부뚜막이 있었고, 서서 설거지

11) 외관상 몸체는 한옥이면서 외부 담장과 경계를 시멘트로 처리하여 만들어진 집을 전주에서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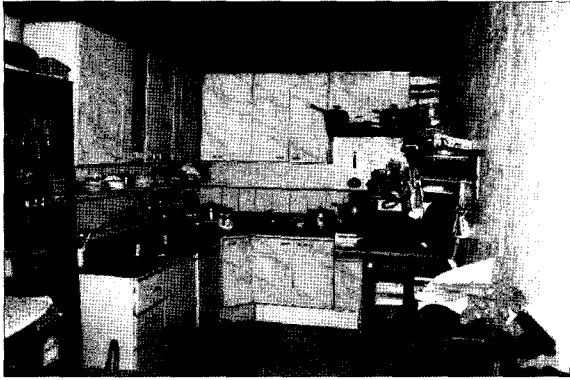


그림 11. 정정순 개조 부엌



그림 12. 김정순의 개조부엌

할 수 있는 개수대가 있었어요. 시멘트로. 조그만한 개수대, 지금처럼은 아니라도 개수대 놓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산다는 집에서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된 집을 샀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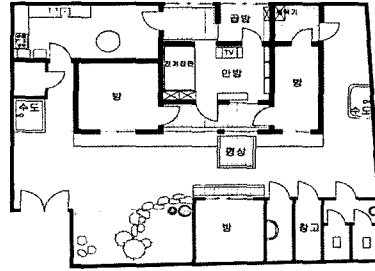
라고 하였으며 이후 80년대에 지금의 부엌으로 개조하였다(그림 12). 구술자 중 70년대 후반 이후 신축한 3집의 사례(김진성: 1978년, 조진아: 1980년, 이현진: 1981년)는 처음부터 부엌이 실내 입식의 형식을 띠었다.

기존주택 부엌의 실내 입식 개조의 큰 변수는 대부분 연탄 보일러와 기름보일러의 사용이었다. 구술자들은 취사와 난방의 분리를 피하면서 연료에 의한 취사 방식의 변화가 같은 축을 이루고 있었고 그 단계별 전환점은 연탄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로의 교체였다. 그 중 김정순은 경제적인 이유로 개조하지 않다가

“88년까지 재래식 부엌이었는데 우리 아저씨가 증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데 입식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쳤어요.(그림 13)”

라고 구술한 예외적 사례도 있었다.

이형승 집은 1980년에 연탄보일러로 교체함과 동시에 부엌 바닥을 높이고 실내로 연결되게 개조하였고 아울러 가스레인을 구입하였다. 진숙희는 1972년 문화촌의 비교적 큰 규모의 일반단독주택에 이주하였는데 70년대 후반 보일러 설치를 위한 전면 개조를 하면서 부엌은 실



No Scale

그림 13. 주연자의 도시형 한옥과 부엌변화(연구자 작성)

내로 통합한 위치로 바꾸고 ‘ㄱ’자 작업대를 설치하고 가스레인을 사용하였으며 거실과 연결된 개방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내입식의 개조란 당시로서는 비교적 빠른 개조였다. 부엌의 실내 입식 개조는 개조비용에 따른 부담이 크므로 그 개조 시기는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원효는 '88년에 개조하였는데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고치고... 부엌도 입식으로 고치고, 보일러도 기름보일러로. 그전까지는 연탄가스 때문에 고생했어요.”

라고 구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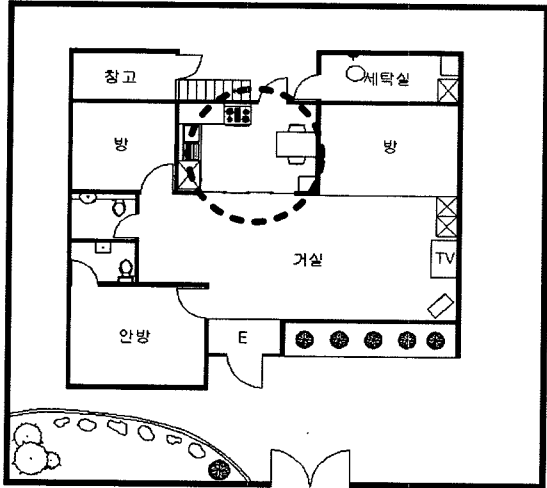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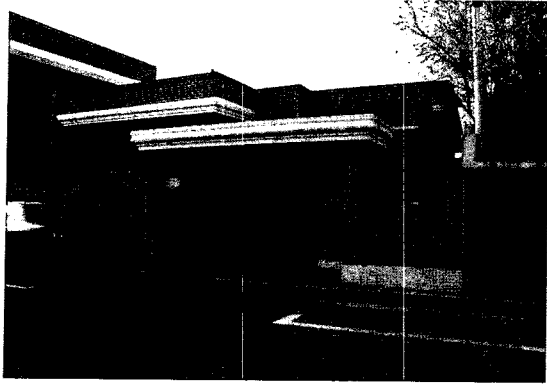
정정순도 80년대에 하였으나 잘 기억을 못했으며 김정순은 '89년(그림 12), 고영자는 조금 늦어 '90년대 초에야 개조를 하였는데 취사를 위한 가스레인지 사용은 83년도부터 하여 본인 말로 남보다 빨랐다고 하였다. 연탄 보일러 사용 시점까지는 부엌 내의 설비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였는데 기름 보일러로 교체할 때에는 부엌의 실내 입식을 염두에 둔 집의 전면 개조를 단행하면서 생기는 공간 구조의 변화가 대폭 발생하였다. 정정순은

“기름보일러는 내가 바꿨죠. 연탄 보일러로 해가지고 하루에 12장씩 가야 되고 하나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자고 했어요.”

라고 하였다. 일본식가옥에 살았던 유영순의 친정집도 81년 연탄보일러 사용으로 교체하였고 86년에 가스보일러로 바꾸고 취사연료로 LPG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부엌의 실내입식 개조와 관련된 주요 요인은 보일러설치와 더불어 가스레인지사용과 입식작업대 수용 등으로 나타났다.

석유보일러로 바꾸면서 80년대까지 부엌을 전면 개조한 구술자들의 집은 90년대 이후 대부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개조를 하지 않은 집들은 90년대에도 부엌의 실내 입식 개조가 이루어졌다(고연자, 주연자). 주연자는 90년대 후반(잘 기억 못함)거주하고 있던 한옥의 부엌을 실내입식으로 하고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다(그림 13). 또한 2002년 신축한 박덕순의 주택 부엌은 거실과 함께 평면 중심에 위치하고 부엌의 규모가 매우 커졌으며 다용도실이 뒷면에 부가되었다(그림 14).

이와 같이 70년대 이후 구술자들의 생활 변화에서 나



2002년 신축평면 No Scale

그림 14. 박덕순신축 단독주택의 부엌 변화 (연구자 촬영 및 작성)

탄안 바와 같이 가사생활 중심인 부엌 공간의 주목은 사실 흙 부뚜막이 시멘트 마감으로 변하는 새마을운동 시점이라고 하겠다. 1960년대까지 구술자 대부분의 부엌은 취사와 난방이 겸하고 있었으며 연료는 연탄사용이 많았다. 그러나 66년 LPG가 등장하고 68년 9월 전주에 석유스토브 및 석유 풍로가 선을 보이기(1968.9.19일자 전북신문) 시작하면서 취사는 부뚜막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로써 난방과 취사의 분리 서장이 시작하게 되었다. 즉, 석유풀로의 사용은 고정된 부뚜막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취사설비였으며 이후 70년대 후반 가정용 LPG 가스레인지가 나오기까지 보편적인 취사용 설비였다. 이렇듯 취사 난방은 불가분의 관계였으므로 부엌의 변화는 부엌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고 또한 구조변화의 배경에는 난방방식의 선택과 큰 관련이 있었다. 구술자들의 공통적인 부엌 변화는 분리된 부엌공간의 구조에서 실내로 통합된 공간 구조이자 입식으로의 전환이었다. 구술자들의 부엌 개조로 인한 공간 변화 시기는 7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이후까지 그 시기적 범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표 4)

- 2) 부엌개조 후의 생활 변화와 의미
- 부엌 개조에 대한 느낌에 대하여 오순옥은

표 4. 구술자들의 부엌 변화 시기

구술자	변화 이전의 구조 (부엌분리실내통합/입식)	부엌 변화 시기
		70년-80년-90년대이후
오순옥	부뚜막/연탄아궁이	1981
이원효	부뚜막/연탄아궁이	1988
고영자	부뚜막/연탄아궁이	1990년대초
정정순	시멘트개수대	80년대중반
김정순	시멘트개수대	1989
박덕순	타일개수대	2002
주연자	부뚜막/연탄아궁이	90년대
전숙희	타일개수대	70년대후반
김진성	부뚜막/연탄아궁이	1978
조진아	부뚜막/연탄아궁이	1981
이현진	부뚜막/연탄아궁이	1981

“많이 편해 졌죠. 부엌에서 밥도 먹을 수 있었고 노한 옥에 살 때는 화장실이 별도였는데 여기 이사오니까 화장실이 입식으로 되었고, 주방도 실내라 좋고 따뜻하고. 남에게 한옥보다 좋다는 과시욕도 있고. 한옥은 추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라고 하였고 박덕순은

“한옥에서는 부엌에서 계단 밟고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 게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편하죠. 그리고 또 따뜻하고.”라고 하였다. 또한 이원효는 “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잖아요. 제가 척추수술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게 참 힘들었어요. 입식으로 해서 그게 제일 좋았고, 탁 티놓고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라고 구술하였다. 이처럼 부엌의 실내 입식에 대한 주요 의미는 구술자들 대부분이 ‘따뜻함’과 ‘편리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외부에 노출된 과거의 부엌공간이 겨울의 추위와 긴 동선, 불편한 작업구조를 지닌데에서 비롯된 어려움과 비교할 때 부엌의 실내 입식은 상대적인 평가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절에 관계없이 취사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이들 구술자들의 한결같은 안도감과 만족의 간접적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개조가 끝난 집들은 무엇보다 식탁의 도입이 활발하였다. 이원효는 방 바닥에서 상을 펴놓고 밥을 먹었는데 개조 후 식탁을 구입하여 식사하였으며 오순옥도 식탁을 부엌 내에 설치하였다. 고영자는 식탁을 구입(2000년 이후)하였으며 김정순은 아직도 밥상을 이용하고 있었다. 박덕순은 한옥에서는 밥상을 사용했는데 신축 후 주방 내에 식탁을 놓았다. 그러나 정정순과 주연자는 부엌을 개조하였지만 식탁이 없이 여전히 식사는 전통적인 상을 이용하고 있었다(그림 14). 또한 새로운 가전제품의 도입이 활발하였다. 믹서나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박덕순, 김진숙, 전숙희, 유영순) 등 90년대는 전주도 예외 없이 많은 가전제품이 끊임없이 선을 보인 해였다. 90년대 전후 및 중반에까지 이어서 전기밥솥, 에어컨, 청소기, 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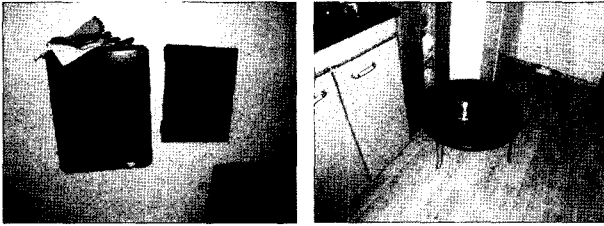


그림 14. 전통 밥상의 사용(정정순과 김정순 부엌내)

퓨터, 김치냉장고 등을 구입하였다(김애경, 김희선, 정미영 임유민 등, 그림 15). 그러나 오순옥과 김정순은 2000년 이후에도 김치냉장고를 사지 않고 전통적인 항아리에 김장을 담가 먹는 생활을 고수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 전주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의 부엌평면이 거실 쪽과 함께 중심에 위치하고 설비가 고급화되면서 단독주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조사 대상 구술자들의 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박덕순의 신축 가옥에서처럼 부엌이 확장되고 거실과 함께 집의 중심에 놓인다는 사례에서 그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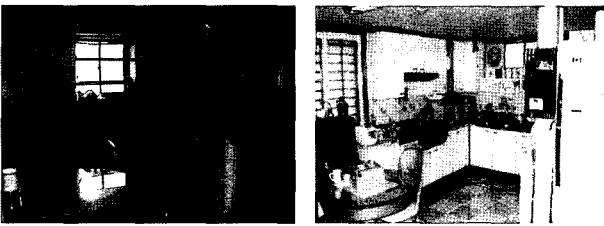


그림 15. 가전제품이 구비된 현대부엌(김애경, 정미영의 집)

## VI. 결 론

70년대 이후 전주의 단독주거 부엌 변화를 알기 위해 구술을 통한 내용분석 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까지는 전주 단독주택은 도시한옥이 기본이었으며 일부 구술자들은 일반단독주택의 신축과 일반식 가옥의 거주 속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난방과 취사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둘째, 구술자들이 거주한 도시한옥 및 70년대 신축된 일반단독주택은 부엌공간의 입식 및 실내입식으로의 변화가 점차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개조된 집과 부엌 공간은 90년대 이후부터는 큰 변화가 없었다.

셋째, 구술자들의 부엌개조와 관련된 영향요인은 연탄보일러와 석유보일러, 가스레인지, 입식작업대 이었으며 부엌개조에 대한 의사결정의 영향에 구술자들의 학력과 경제능력이 관련이 있었다.

넷째, 구술자들의 부엌 공간 실내 입식에 대한 가장 큰 상징과 의미는 ‘따뜻함’과 ‘편리함’이었으며 개조 후 식

탁도입을 통한 식사생활의 변화가 많았다.

다섯째, 90년대 이후 신축된 구술자 단독주거의 부엌 공간은 그 면적이 확장되고 거실과 함께 집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통적 사회가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전주 지역에서 가족의 발전과 화합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긴 주부로서의 전주지역 구술자들은 가족의 특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거 및 부엌 공간을 개선하면서 삶의 역동적 모습을 담아 왔으며 집과 함께 그들이 살아 온 시대적 생활 문화의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1. 김규남·이길재(2002), 지명으로 보는 전주100년. 전주:신아출판사
2. 전북일보, 1950년-1980년
3. 장명옥외(1975), 표준가정일반, 서울: 어문각
4. 문교부. 중등 가정교과서, 1970년-2000년
5. 전주시(1997), 전주시사
6.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2001), 신문으로 본 전주사람들 하나,
7.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2001), 신문으로 본 전주사람들 둘
8.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2001), 이야기로 듣는 전주사람들
9. 윤복자의(1994), 부엌총서, 한샘연구보고서
10. 한국가족학회(2003), 집과 가족의 공간문화
11. 김태영(2003), 한국의 근대도시주택, 기문당
12. 박길성의(1999),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 함한희(1999), 문화에 발목잡힌 한국경제, (주)현민
14. 윤택림(2003), 일제시기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부엌,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중간보고서
15.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아르케
16. 김성희(1999),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서울:신정출판사
17. 이임하(2004), 제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울:서해문집
18. 여성한국사학회연구소(2002),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경문사
19. 대한주택공사(1983), 주택핸드북
20. 대한주택공사(2000), 주택핸드북
21. 박선희(1984), 한옥에 대한 거주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대논문집 10집, 75-82쪽
22. 박윤정(1991), 도시 단독주택의 주공간구성과 주생활의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박인덕(1979), 한국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 손세관·하재명·양우현·양용정(1996), 전주시 도시형한옥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2(7), 29-38쪽
25. 이현정(1994), 도시주택의 부엌유형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전영재외(1984), 향토전주사. 전주문화원
27. 팬아시아중이박물관(2004), 조선시대의 전주
28. 한국역사연구회(1998),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역사비평사

(接受: 2006. 7. 10)